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신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2)
2010, 4, 17일 4회분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序;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알려고 해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곧 그 이름을 확실히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약 6500번쯤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칭호 2600번보다 두 배 반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칭호를 힘써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이름은 기념칭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할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다. 네 가지 확실한 기념이 그 이름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기념이 존재양식의 기념이라는 사실을 함께 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오늘은 다음의 기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두 번째 기념은 창조주로서의 기념이다.

2). 창조주로서의 기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은 존재가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런 사실을 공포하는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실 때 바로 이런 것을 선포하신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있도록 했을 때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창조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당연히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할 때 우주만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사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행17:24,2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창세기 1:1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실을 선언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와 만물의 존재 근거이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할 존재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알리신 것이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그들을 부모로 여길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렘10: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선언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망한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경배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뿐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에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칭호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칭호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곧 있는 자이신 분께서 창조하실 때 “있으라.”하니 그 있으라 한 것이 있게 된 것이다.

[창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시33:6,9]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매 그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었다고 계시하였다. 입 기운,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만상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나는 상대성 원리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E=mc^2$이라는 공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시편 33:6을 생각하였다. 이것은 질량에 광속도의 제곱을 곱하여 에너지가 된다는 공식이라고 들었다. 즉 물질이 힘이 된다는 과학 공식이다. 나는 이 공식의 역을 생각하였다.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면,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시편 33:6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느낀 것이다. 과학 이론으로는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경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는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물질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 하시매 지음이 되었고, 입 기운으로 만상을 만드신 것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일을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광합성작용이 아니겠는가. 태양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일이 바로 광합성작용이 아닌가. 나는 과학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학을 아시는 분들이 웃을는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 기운을 만상을 만드셨다는 말씀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공식이 잘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있으라. 있으라.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에 그가 있으라고 한 것들이 다 있게 되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것이다. 그 입 기운 에너지가 물질이 된 것이다.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사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 있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실 때 이런 기념들을 다 선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념하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창조하신 분만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창조하지 않은 신은 망한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신은 반드시 창조주라야 한다. 그런 분은 또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어야 한다.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창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셨다. 그분과 함께한 다른 존재가 없었다고 분명히 계시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바로 이렇게 창조주라는 기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분이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믿어야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서만 존재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이름만 알고 그 이름의 기념을 모를 때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분의 거룩하심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복된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0:26에 계시하셨다. 그것은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지으실 만물의 수효를 정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오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손으로 지으신 것도 있고, 말씀만으로 지으신 것도 있을 것이다. 영감을 받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시8: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물론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영감과 계시로 기록하게 하실 때,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다. 창조하기로 계획한 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은 아직도 창조하실 때 제정한 법칙을 따라서 잘 운행되고 있다.

[시119:89~9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우주가 이렇게 잘 운행되고 있는 것은 창조주가 제정한 법칙을 잘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렇게 만드신 우주는 창조주 안에서 안전하고 완전하게 운행되며 존속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계시한다.

[시90: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골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창조주 안에 서 있다. 창조주가 만물의 거처라는 말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만유보다 크시다.

[요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엡4: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골3: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창조된 것은 어느 것이나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창조주가 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만유가 창조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말이다. 어느 것이라도 창조주를 떠나면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런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실 때 그분은 존재의 거룩함과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론 지구와 지구에 가까이 관계된 천체들도 창조하셨고, 지구 위의 만물도 창조하셨다. 그 창조에 의하여 우리들도 있다.

이 지구와 지구에 관계된 것들은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하루씩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계시한다.

[출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과학자들 중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것 같다. 지질학의 동일과정설이나 탄소14의 반감기 등을 받아들일 때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지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적 이론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나는 미련해서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창조는 과학이 아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는 창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적을 인간이 연구한 과학적 이론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것은 그 방법부터가 바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런데 2장에는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고 기록되었으며, 그것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한 후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 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진다.

영국 출신의 목사요 아마추어 수학자인 에드윈 아보트(Edwin Abbott)씨는 1884년에 평면의 나라(Flatland)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평면적 사고를 가지고 단지 2차원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스퀘어(A. Square)라는 사람의 모험담이다. 스퀘어에게 있어서 세상은 단순히 평평한 면(面)에 불과했으며, 그는 오로지 동서(東西), 아니면 남북으로 이동할 뿐, 위와 아래, 혹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스퀘어가 한번은 '선(線)의 나라'(Lineland)를 방문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선 위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앞으로 아니면 뒤로 움직일 뿐이었다. 선의 나라 사람들은 '넓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퀘어는 선(線)보다 더 넓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애써 설명하려 했으나 그의 말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는 다시 '점(點)의 나라'(Pointland)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점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전진이나 후퇴는 물론 옆길로 갈 줄도 몰랐다. 그곳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역시 헛수고일 뿐이었다.

어느 날 스퀘어는 3차원의 세계인 '공간의 나라'(Spaceland)에서 온 한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된다. 2차원의 세계밖에 모르는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로 들렸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직접 공간의 나라를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스퀘어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공간의 나라 안내자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공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도 있겠지요?"라고 하자, 안내자는 "3차원의 세계보다 높은 차원은 없어요" 하며 강하게 거부했다.

창조주의 일을 피조물인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아담스 목사 이야기, 안두화 안변암 목사는 대구 경북지역을 담당한 미국 북 장로교 파견 선교사였다. 그가 안동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일화가 있다. 말을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모르지만 그때 전도 여행을 도보가 아니면 짐승을 탔다. 1920년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안동에 갔을 때에 양반들을 포함하여 안동 사람들이 서양사람 구경을 하기 위하여 봉놋방에 모였다. 방에는 관솔불이 타고 있었다.

촌로들이 서양 사람을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는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담스는 서툰 발음으로 대답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고?” 아담스는 신이 나서 미국을 소개하였다.
“미국에는 전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등불을 켜는데,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자동차가 있어서 하루에 몇 백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등등. 미국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였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촌로들의 반응이 걸작이다.
“아이고, 그 젊은이 참 거짓말도 잘 하는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당시의 사람의 상태를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마치 스퀘어가 방문한 선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면의 나라를 가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안동 촌로들이 미국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 잘 한다고 말한 반응하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실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영감과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한 성경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락한 세계의 과학을 잣대로 하여 성경의 기록을 재단하는 것은 선의 나라 사람이 면의 나라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진화론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을 나타낼 때에 대하여 오래전에 예언하였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멸망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참으로 오래전에 기원전 1000년경에 진화론 발상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읽으면 기이한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나도 그분의 창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속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행17:26~28]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이름인가.

이 이름은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른 뜻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오늘의 삶도 영위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시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잠18:10]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이 이름을 의지하고 안전하게 복된 하루를 지내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빈다.
[시8:1,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

이다./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하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이 이름의 기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을 알고 경배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이다.

기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이름의 또 다른 기념을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의 보장이 되시는 이 이름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충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고 연락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760-329-3846으로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